



2015 동아시아 문화도시 청주

VITA CITY CHEONG-JU

본래 인간은 오늘날과 같은 인위적 도시가 아니라
숲이나 들판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촌락에서 살아왔다.
촌락은 그 자체가 생태계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삶의 형태였다.





서양은 폴리스(Polis)라고 하는 인위적인 도시국가를 만듦으로써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켜 왔다.
특히 산업혁명을 통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서구 산업도시에서
인간의 소외는 가속화되었다.



기능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도시가 생성되고, 사람이 사는 곳은 베드타운(Bedtown)이라는 이름으로 밀려나게 된다. 도심은 이제 셔터문이 내려지고 인적이 드문 **공동화된 타운**으로 변했다.

이것은 황폐화된 산업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생명과 인간이 죽어버린 도시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어 도시를 재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의 힘이 필요하다.
문화의 힘으로 생명이 살아난 도시,
바로 청주가 만들고자 하는 생명문화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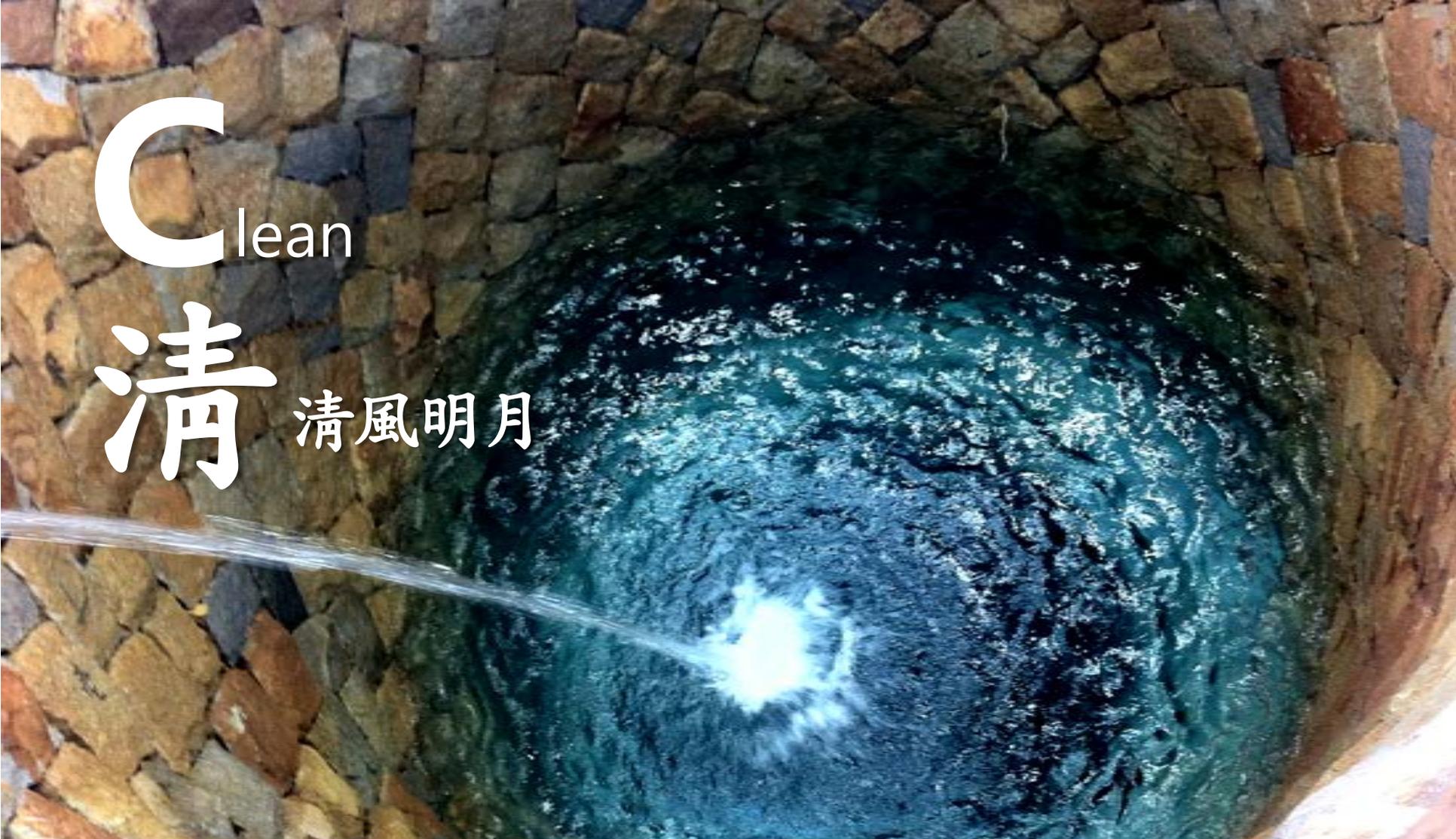
누가 청주를 내륙지에 있어 항구가 없는 유일한 땅이라 했는가.
아니다. 동아시아의 문화도시 청주는,
이제 한국인의 그리고 아시아인의 **생명의 모항**으로 열려있다.

VITA CITY

생명문화도시 청주

구현 개념도



A top-down view of a stone-lined well. The well is circular and built with irregular, reddish-brown stones. The water inside is clear and blue, with a stream of water being poured from the left side, creating a splash in the center. The lighting is bright, highlighting the texture of the stones and the clarity of the water.

Clean

清 清風明月

청주, 문화의 힘은 淸 Clean - 맑음이다. 지금 도시문명은 오염과 부패로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 3대 광천수로 이름난 초정약수의 상징처럼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고 치유하는 청풍명월의 현대적 재생 - 생명의 창조도시를 기다린다.



Happy

幸 千幸萬福



절멸해가는 두꺼비 떼와 새로운 아파트의 주민이 상생하여
자연의 생태계와 도시의 시스템이 하나로 만나는 작은 기적의 땅.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생명문화도시의 시작이다.

交友篇第十九凡二十四條
婦行篇第二十凡八條

明心寶鑑目錄

新刊大字明心寶鑑上

繼善堂第一凡四十七條

子曰為善者天報之以福為不善者天報之以禍
○尚書云作善降之百福作不善降之百殃
神翁曰積善逢善積惡逢惡仔細思量天祐
○善有善報惡有惡報若還不報時晨未到
書云作善自福作惡自災生○福在積善
積惡○平生作善天祐若若是愚頑受禍
到頭終有報高飛遠走也難藏○行藏靈

E d utainment
學 學而時習

예부터 청주는 교육도시라 불려왔다. 향교, 직지, 명심보감, 태교신기 등 배움과 학문의 도시이다. 시대가 바뀌면 사람도 바뀌고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도 달라진다. 하지만 배움의 즐거움이 따른다는 말은 변함없는 진리로 21세기가 지향하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가 바로 그것이다.

O rigin

本 本立道生



청주는 책이나 유물 등 보존되고 새롭게 발굴된 유산들은 모든 문화의 기본이 되는 본원의 힘을 지니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범씨로 알려진 '소로리범씨',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직지' 등이 그러하다. 청주야말로 본립도생 - 본이 제대로 서야 도가 생긴다는 그 고장이 아니겠는가.

Networking

結 生同心結



청주는 길이 이어지는 도시다. 아름다운 가로수길, 사통팔달(四通八達)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중심지 -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길을 통해서 마치 아름다운 한국의 매듭, 동심결처럼 생명의 매듭을 만들어간다.

Glocal

和 和而不同



서로 화하되 따로의 개성을 지닌 화이부동의 꿈이 이곳에서 열린다.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은 그동안 대립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 세계 문명이 아시아의 축으로 옮겨오면서 그것이 어울려 하나가 되는 글로컬 시대가 출현했다. 유례없는 도농복합의 21세기형 글로컬 생명도시가 눈앞에 다가온다.

대표 프로그램 예시

◎ 청주 시민 꽃밭 / ◎ 나무 순례길

◎ 시민스토리 박물관

◎ 생명디자인 마을

◎ 동아시아젓가락페스티벌

◎ 동아시아 창의학교

◎ 동아시아 문화공항

◎ BBB (언어 장벽 없는 도시)

◎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 세종대왕초정약수축제

◎ 한중일 토종시장 / ◎ 한중일 명심보감



개막
행사

2015 동아시아 문화도시 청주

보릿고개 넘어 생명도시로

6개 마당

CHEONG

The background of the image is a dense field of golden wheat, rendered in a style that suggests a painting or a high-resolution digital texture. The wheat stalks are numerous and closely packed, creating a rich, textured appearance. The color is a warm, golden-yellow, with some darker, brownish-green tones at the base of the stalks. At the very top of the image, there is a dark, almost black, textured band that looks like a shadow or a different material, possibly representing a sky or a distant horizon. The overall effect is one of a vast, sunlit agricultural landscape.

Join us!